전남 최대 나주 공공산후조리원, 2026년 2월 새단장 개원

산모실 확대…임산부 전용 승강기 신설… 경혈, 요가, 족욕 등 힐링 프로그램실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출산과 산후 회복을 위해 전남 최대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새롭게 선보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빛가람동 빛가람종합병원 내 전남공공산후조리원(4호점)이 전면 리모델링과 기능보강 공사를 거쳐 내년 2월 새롭게 문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026년 2월 재개원하는 나주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을 18실로 확대하고 각종 힐링 프로그램실과 임산부 전용 승강기를 신설해 더 넓고 쾌적하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준공 이후 수많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켜온 나주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번 공사를 통해 단순한 보수를 넘어 전남 최고 수준의 산후조리원으로 도약한다.

산모실은 기존보다 늘어난 18실(전남 최대 규모)로 확충돼 더 많은 산모가 아늑한 환경에서 안정된 회복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산모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경혈 마사지실, 요가실, 족욕실, 모유수유실 등을 3층에 새롭게 마련해 단순한 조리원을 넘어 '작은 힐링 센터'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임산부 전용 승강기를 설치해 산모와 신생아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올해 10월 재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공사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시는 새집증후군 예방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기준 충족 등 철저한 안전 검증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재개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정 산모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기간에 전남 내 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중이다.

나주시 산모들은 주소지 이전이나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해남, 강진, 완도 등

타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 28주부터 희망하는 전남공공산후조리원으로 전화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재개원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기다려주신 만큼 더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영암 청무화과의 맛·향·색 서울 연남동서 만난다

29~31일 팝업스토어 '여왕의 궁전 : 무화과 연회' 개최

영암군농업기술센터가 29~31일 서울 연남동에 무화과 팝업스토어 '여왕의 궁전 : 무화과 연회'의 문을 연다.

농촌진흥청의 '기술 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의 하나로 로컬브랜드 홍보업체 컨츄리시티즌과 함께 팝업 전문 가게인 스몰타운스몰에서 청무화과 인지도를 높이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

영암군은 국내 무화과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대표 주산지이고, 영암 무화과는 맛과 영향 등 품질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영암 청무화과는 평균 17브릭스(brix)의 당도에 깊은 향을 지녔지만, 평균 15브릭스 당도의 흥무화과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서울 소비자들에게 이번 팝업스토어로 청무화과의 매력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젊은이는 물론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청무화과 스토리텔링 체험이 진행된다.

무화과왕국의 청무화과 여왕 '피그린 5세'가 개최하는 연회 형식으로 4가지 테마가 준비돼 있다.

방문객이 스토어에 입장해 '아름

다움의 여왕' '달콤함의 여왕' '향기의 여왕' '매혹의 여왕' 카드 중 1개를 선택하면, 여왕 손거울 만들기, 무화과 잼 시식, 무화과 향수 시향, 무화과 에이드 제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다양한 체험에 더해 무화과 생과, 텀블러, 볼펜, 키링 등 다양한 굿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암 청무화과는 맛과 품질 모두에서 전국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청무화과의 매력에 흠뻑 빠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담양군이 여성농업인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립니다

1955~1974년생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 검진비 90% 지원

담양군이 여성농업인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대상자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 모집한다.

이번 검진은 담양군에 거주하며 1955~1974년생 중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검진 비용은 총 22만 원으로 이 가운데 90%를 군에서 지원하고 본인 부담 2만 2천 원만 내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은 광주 북구에 자리한 에이치메디컬의원에서 진행되며, 군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검진 항목은 농업 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질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을 검사한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사고, 심혈관계질환 등에 대한 예방교육도 함께 제공해 농작업 안전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담양군청 농업유통과로 이메일(yujin5286@korea.kr)을 보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과 농약중독, 낙상사고 등에 취약하다"며, "이번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군민들이 조기 진단과 예방교육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담양/이종옥 기자

구례군 주민자치회, 광주 남구 사직동과 첫 교류 발걸음

마산면 주민자치회 – 사직동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전남 구례군 마산면 주민자치회와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동 주민자치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에 나선다.

구례군은 마산면 주민자치회(회장 진동완)가 지난 8월 26일 사직동 주민자치회(회장 이남숙)와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10시 마산면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40명이 마산면을 방문해 양 지역 주민자치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는 △상호 교류 정례화 △상생 발전 방안 모색 △지역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례군은 이번 협약이 주민자치회 출범 첫해의 교류 활동 가운데 첫 성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 이후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분과위원회 활동 성과 등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부터 주민투표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방식이 도입돼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나는 마산을 산다 – 마산 이야기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마을 이야기 발굴, 마을지도 제작, 마을사진 전시회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과 초등학생이 함께 참여한다. 구례/한정호 기자

함평군, 양성평등주간 맞이 성폭력 예방·성인지 교육 실시

건전한 공직 문화 조성 및 성평등 사회 실현 박차

전남 함평군이 올바른 성평등 문화를 확립하고 건강한 공직 문화 조성에 나선다.

함평군은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성교육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9월 2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군민과 공직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개최한다.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개념 이해, 예방 사례, 2차 피해 방지 방안 등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선순자 순천제일대학교 겸임교수를 초청해 '나의 가치를 높이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은 성평등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상 속 성인지 감수성 실천 방안을 공유해, 궁극적으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군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부서별 자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성평등 가치 확산과 건전한 공직 문화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성평등은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현대 사회의 필수 가치"라며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완도군, 공감·소통 '청렴 주간' 운영

형식적 교육 벗어나 체험, 공감 참여형 콘텐츠 교육 진행

완도군은 지난 19일 22일까지 '청렴 주간'을 운영했다.

'청렴 주간'은 직장 내 갑질 및 부당한 지시 등을 근절하여 수평적 소통 문화를 조성하고, 세대 간 이해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행복한 직장,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청렴 주간'은 '해양치유 완도, 청렴의 파도를 타다!(표어 공모 당선작)'를 주제로 기존의 일방적, 형식적인 교육에서 탈피해 체험, 공감하는 참여형 콘텐츠를 접목한 교육으로 기획했다.

19일 '청렴 친화 페스타'에는 고위직, 부서장,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참여해 제작한 청렴 영상 시청을 통한 문제의식 공유 ▲군수와 함께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결의 ▲청렴 표어 공모 시상 ▲청렴 연극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 토크 등으로 구성됐다.

'청렴 연극'은 실제 공직사회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갈등과 유혹을 극으로 풀어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에는 고위직,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 위주의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22일에는 청렴·반부패 관련 법률과 규정을 퀴즈로 풀어보는 '도전! 청렴 골든벨'이 진행됐다.

또한 청렴 주간 5일 동안 부패 신고 모의훈련을 진행하였으며, 훈련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이행 충돌 등 부패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과 민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전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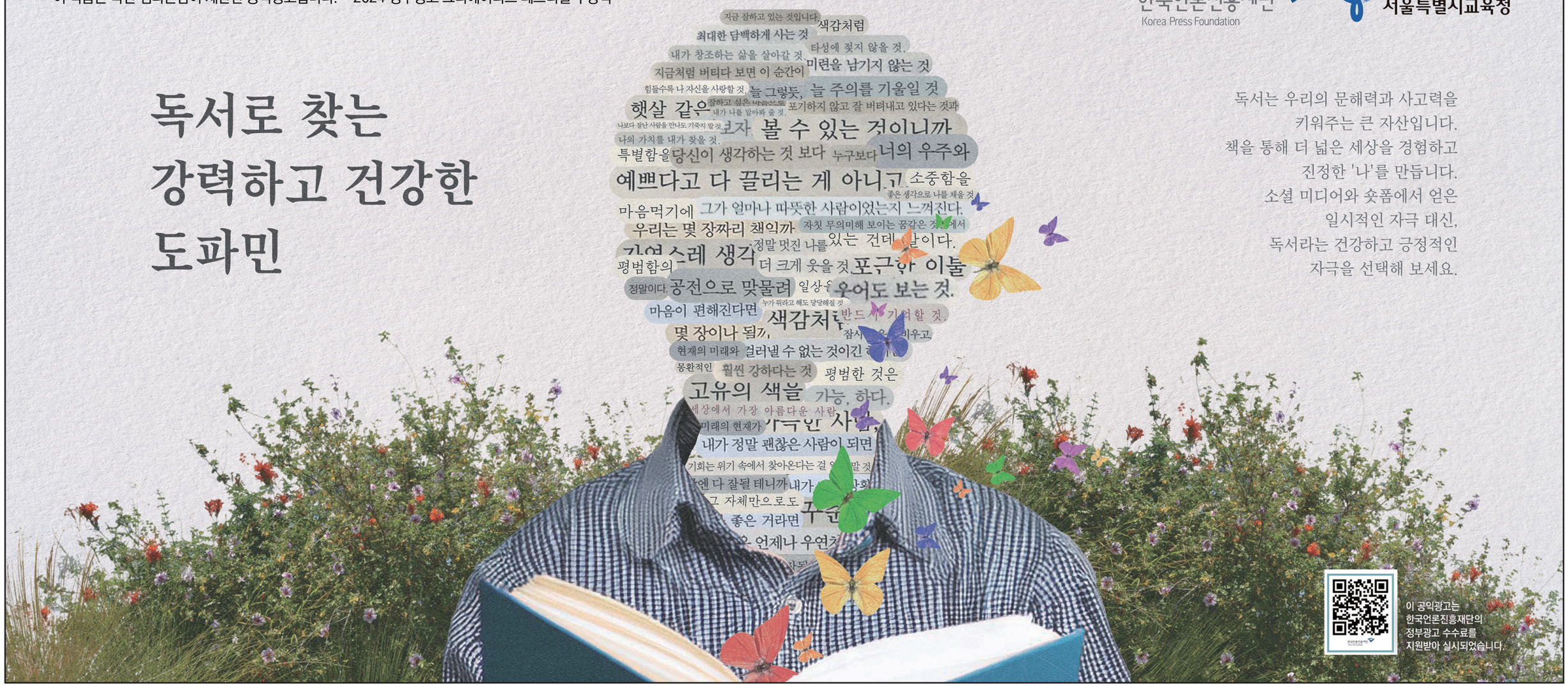
신우철 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이자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근간이다"면서 "앞으로도 청렴이 공직문화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